

# 지역기업과 청년 일자리 잇기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작

### 산업기술진흥원·16개 테크노파크 공동 추진...지역기업 문제해결 경진대회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2018년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국 16개 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내일(Tomorrow)'이 청년의 내일(My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현장탐방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500여개 이상의 지역기업을 탐방했으며, 올해부터는 6년간 지속 추진돼 온 인식개선 성과를 토대로 지역기업으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다채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지역기업 문제

해결 경진대회가 열린다. 청년이 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상호 간 심층 탐색 계기로 삼아 채용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5개 권역(충청권·영남권·대경권·호남권(제주포함)·강원권), 25개사에 대해 75명의 청년이 참여하게 된다.

우수기업 기획탐방도 확대 추진된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지역기업을 접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CEO기업과 사회적 기업, 드론 산업 관련기업 등 기획탐방을 강화해 기업탐색 영역 확대를 통해 우수 청년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희망이음 채용박람회도 개최된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매칭 및 현장면접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기업과 청년 간 소통 확대가 직접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

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시상식을 통해 우수기업과 청년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취업이 참여기업으로 연계된 경우 기업의 정부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그동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만큼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과 청년이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상호 탐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가 채용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azar76@

# "상생협력, 중소기업보다 공정거래 질서확립이 우선"

###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조사·응답자 절반이상 '대기업 파트너십 인식 강화' 지적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대기업의 파트너십 인식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학계·연구계 상생협력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현황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생협력의 필요와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75.9%는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라고 대답했다.

반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든 사람은 18.5%, '중소기업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든 사람은 5.6%에 그쳤다.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9.2%가 '중소기업에 대한대기업의 파트너십 인식 강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의 정부·대기업에 대한 의존적 태도 해소'는 13.0%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정책 지원'을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63.0%가 '전사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질서 준수'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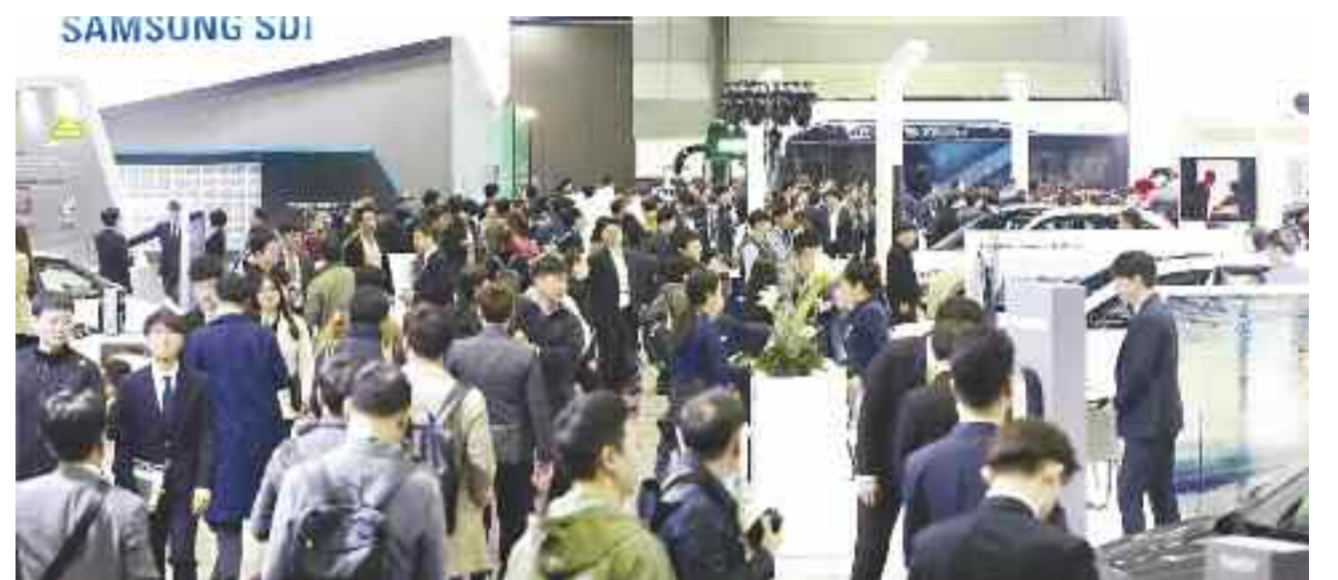
뒤를 이어 '국내·외 판로개척, 판매·구매 지원을 통한 협력사에 성장

기회 제공'이 16.7%, 'R&D, 생산성 향상, 인력 향상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11.1%, '보급·대출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 경영안정에 기여'가 9.2%를 차지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72.2%가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등 공정한 법·제도 마련'을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천기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14.8%,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원' 13.0% 등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정일 기자 yunji@

## 전기차 산업 미래 확인할 'EV 트렌드 코리아 2018' 막 내려 눈은 즐거웠지만 해결할 과제도 여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EV 트렌드 코리아 2018'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코엑스·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기차엑스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등 다양한 친환경 운송수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과 기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대자동차가 코나 일렉트릭을, 재규어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I-페이스를 공개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신형 전기차 모델들은 스포트

라이트를 집중시켰다. 관람객들은 전기차와 전기버스 등을 시승해보고, 구매 정보를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에서 열린 전기차 관련 첫 번째 전시회라는 기대와 달리 적은 수의 기업만이 참여했다. 행사를 기획한 입장에선 알짜배기 기업들만 참여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으나 참여기업의 수가 많지 않으니 기술 다양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지만 눈에는 못봤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이날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코나EV의 경우

올해 초 예약판매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2만8000대로 상향조정하고, 추경예산 등을 확보할 경우 최대 3만2000대까지 보급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지만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에 비해 관련 정보나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인상이 지우기 힘들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일 올해 1만2000기의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충전 요금 현실화와 위탁사업자들의 시장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조준호 기자 jh@

## 내년 진주에 국내 최초 우주부품시험센터 문 연다

### KTL, 5940㎡ 부지에 건설 140억 규모 시험장비 구축

내년 경남 진주에 국내 최초의 우주부품시험센터가 문을 연다.

KTL은 13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재경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940㎡ 부지에 140억원 규모의 시험장비 22종이 구축되는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앞으로 국내 기술로 직접 제

작한 인공위성, 발사체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등 독자 우주개발을 위한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우주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태동기인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 위상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진주시, 항공우주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선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우주시험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22종 140억원 규모의 시험장비를 구축해 시험전문인력을 통해 우주부품에 대한 원스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완공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동희 KTL 원장은 "52년간 쌓은 시험평가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부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교 기자 kimsk@



13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경남 진주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 1면서 계속 봄비 이겨낸 1만 전기인 '열정' 상암별 달구다

올해 전기사랑 마라톤대회에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많았다.

먼저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기·에너지 산업계가 관련 트렌드를 이끌겠다는 슬로건을 전명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 전환! 5대 신산업! 전기계가 선도한다!'라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구호 아래 귀빈들이 스위치를 누르자 5대 신산업과 에너지 전환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

이러 전기인들의 소망을 담은 수천여개의 풍선과 폭죽이 상암별을 오색으로 물들이면서 대회의 열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아울러 어려운 이들과 나눔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04년 첫 대회부터 지속해온 '빛 한줄기 기금'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 조성된 기금은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이 되거나 예고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된다.

이행주 본지 사장은 "이번 전기사랑 마라톤의 슬로건은 '에너지 트랜지션,

해피 투모로우'라며 "에너지전환은 이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방식에서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메가트렌드"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전기인들은 공통의 목표 의식을 갖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서로 협업해야 한다"며 "전기신문도 에너지 전환시대에 우리 전력산업이 다시 한번 원대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재부, 지자체 대상 재정현장컨설팅

### 상반기 권역별·하반기 시도별 예정, 예타제도 집중 토론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위해 시·도 재정현장컨설팅 방문계획을 확정했다.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통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지난달 29일 춘천에서 강

원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하반기에는 시·도별로 개최된다. 기재부는 오는 19일 수원에서 수도권, 26일에는 광주에서 호남권 재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현장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충청권 공무원(대

전), 10일에는 경북·대구 공무원(대구), 17일에는 부산·울산·경남 공무원(창원)을 만나고, 24일에는 제주 등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담당자도 참가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히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타제도 도입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일선현장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윤정일 기자

### 시험용 고전압·대전류 계측기 및 전기안전관리 등록장비 전문취급

개정된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한 저항성분 누설전류 로거 출시!

- 간헐적 누설을 놓치지 않는 빠른 응답속도 (샘플링속도 약 24.4μs)
- 최고속도 200ms에서 로킹 및 분석 가능
- 고조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IIR 측정
- 최대 4계분 동시측정 및 로킹
- 금속 내진반에 부착가능한 후면자석 적용

차단기가 왜 떨어지지? 간헐누설 기록 가능!

- 전원품질분석기
- 계전기 시험기
- 원인저항계
- 원인류 내전류시험기
- 모터 시험기
- 표준형 SF6가스 분석기
- AC/DC 내전압시험기
- VI, TD 시험기

### PLUTO

(주)플루토테크놀로지

www.plutotech.co.kr

문의전화 031-994-3871

PHENIX, b2, Matsusada Precision, KYORITSU